

일 어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다음 글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총 25점)

- 1) 異った目で自然を見直せば、新しい世界が見えてくる。そこから、文化としての科学の奥深さを鑑賞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だろうか。私たちの周辺にはあらゆるモノがあふれている。それらはふぐ毒や朝顔のような自然物であったり、磁石やブランコのような人工物であったりするが、それぞれ人間世界に登場するに当たって異った歴史を持ち、詩に詠われ、科学研究の対象にもなってきた。そこで、これまでバラバラにされてきたモノをめぐる知的な営み全部をつなぎ合わせて、一つの物語を作ってみたらどうだろう。役に立たなくても、新しいものをつけ加えなくても、知的に楽しく、これまでと違った目で世界を眺めることができるはずだ。(10점)

- 2) ユビキタス。多くの方にもまだ耳慣れない言葉だろう。一瞬「湯引き」という料理用語を思い浮かべるようでは、あまりに時代遅れかもしれない。外来語の言い換えを提案している国立国語研究所は「時空自在」と訳した。あらゆる物がコンピューターにつながり、情報が行き交う社会のことをいう。

元々は「どこにでもある」「遍在」という意味のラテン語で、神はあらゆるところに現れる、というような場合につかわれたらしい。その神のようにコンピューターが「遍在」する状態がユビキタスだ。

たとえば食品一つひとつに超小型コンピューターを埋め込む。そして「情報」を持ち運ばせる。家庭で冷蔵庫に詰め込まれても、生産地はどこ、賞味期限はいつ、などが一瞬にしてわかる。「この魚は湯引きしてお使い下さい」などの指示を内蔵することもできるだろう。

外出先から自宅の「物たち」に命令することもできる。さらに「物たち」が自分の判断で電源を入れたり消したりすることも可能になるという。「時空自在」という言い換えは、そうした便利さを考えてのことだろう。

「超利便社会」到来なのか。「超管理社会」への道と見るのか。実現はそう遠くないともいわれるユビキタス社会については見解が分かれる。「技術開発は急ぎ、社会への適合はゆっくりと」とは推進者の意見だ。

それでも最悪事態を想像してしまうのは悪い癖か。人間一人ひとりにまで超小型コンピューターが埋め込まれるような未来だけはご免被りたい、と。(15점)

제 2 문. 다음 글을 일어로 옮기시오.

(총 25점)

- 1) 일본의 주택문화는 서구나 동양의 그것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생활 거주지로서의 주택에는 맨션, 아파트, 단독주택 등이 있다. 일본 주택은 기본적으로 지진에 잘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큰 건물은 튼튼하게, 작은 건물은 유연하게 짓는다. 그리고 정원이나 분재로 주택을 장식하며, 목재를 많이 사용한다. 대체로 건물은 장식이나 화사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내부 공간과 자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특히 일본은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가 좁아 토지의 희소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집을 짓는 데 많은 토지를 확보할 수 없다. 주택을 이층 목재 건물로 짓는 것은 좁은 토지를 활용하려는 의도와 잦은 지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다. (12점)

- 2)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짜 뉴스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와 관련된 보도가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가짜 뉴스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다.

대체로 ‘뉴스형식을 빌려 허위 내용을 뉴스인 것처럼 온라인에 게시한 것’을 가짜 뉴스로 보는 것 같은데, 실제 가짜 뉴스라고 보도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 범위는 상당히 넓다.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권위 있는 방송사인 CNN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를 내보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야당 대표인 그릴로(그리ッ로)가 신문과 텔레비전 등 기성 언론이 가짜 뉴스의 주된 생산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거나 비판적인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칭하는 현상도 보인다.

이처럼 가짜 뉴스라고 일컬어지는 콘텐츠의 범위가 워낙 넓어 이에 대한 개념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13점)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장